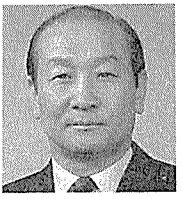
홍보사업과 소외 계층을 위한 환원사업에 주력할 계획

1994년도 한국건강관리협회 사업 방향



전 무 근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건강하게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인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계속되어져 왔을 것이다. 이러한 염원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인류는 의학 · 약학 · 유전공학 등 생명과 관련된 많은 학문과 기술에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였고 지금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고도의 산업사회로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인류의 생활수준은 크게 향상되었고 또한 의료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평균수명 연장과 행복한 사회 실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의료수준이 높아졌으며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욕구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89년부터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의료 이용이 더욱 용이해졌고, 보건의료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영아사망률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수준도 크게 향상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과정은 생활 양식의 변화, 인구의 고령화, 환경공해, 사회구조의 복잡화 등을 동반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건강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비전염성 만성 퇴행성 질환(성인병)이 건강을 위협하는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산업발전에 기인한 환경 공해 역시 우리 건강의 커다란 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건강문제들은 지금까지의 치료 중심의 의료나 생활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사전에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건강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국민들의 보건의식 향상, 균등한 의료 혜택 부여, 질병 예방 생활을 위

한 각종 정보 전달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한국건강관리협회도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방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양상의 변화,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의 발전,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준은 아직까지 별로 높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영유아기·청소년기 등 각 연령에 따른 계층별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영세민·노인 건강 검사를 비롯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 시설의 이용 측면에서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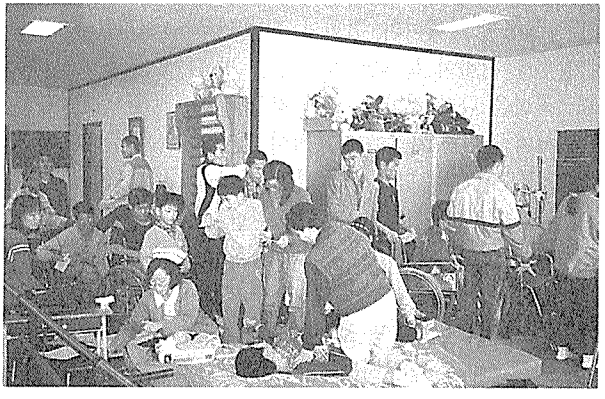
이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소위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새해의 우리 협회의 사업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을 수립·전개하고자 한다.

갑술년 새해의 건강관리사업의 주요 방향과 계획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검사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지역적·경제적 수준의 차이와 관계없이 균등한 의료 혜택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 주민이나 도시 저소득 계층·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민이나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질병의 치료 뿐만 아니라 건강생활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몇가지 기본적 건강검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건협은, '모든 이에게 평등한 건강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세계적 목표에 따라서 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들 소외 계층에 대한 무료 검사를 확대·실시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검사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올바른 보건의식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또한 올해에는 그동안 매년 실시되어 오던 무료 당뇨병 및 혈액형 검사를 더욱 확대하여 당뇨병의 조기발견과 함께, 전 국민의 혈액형을 찾아주는 데에도 주력하여 국민건강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조사 연구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선진국의 앞선 보건의료 기술과 운영 체계를 도입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개발 · 활용할 계획이며, 협회의 검사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분야별 연구 논문 발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검사 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검사기술 및 정도관리 측면에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의식 계몽을 위한 자료 개발의 기초 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째로, 새해에는 국민 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 등 홍보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각종 계몽자료의 개발에도 힘쓸 계획이다.

현대 질병의 특징은,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 건강행동이 수반되어야만 비로소 건강을 지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올바른 보건의식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건강관련 비디오를 비롯한 각종 건강 계몽자료를 개발하는 동시에, 국민 생활과 보다 가까이에서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건강관리 공개강좌나 지역별 건강관련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네째, 새해에는 최신 검사 장비의 도입과 함께 각종 장비의 효율적 활용에도 주력할 것이다.

특히 지난 해 대전 · 충남지부와 경기지부에 도입되어 국내 최초로 운행되기 시작한 위암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 시행할 것이다.

다섯째, 신규 검사 종목의 개발 및 각종

건강검사 사업을 확대·실시할 것이다.

현재 전북지부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근로자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근로환경 측정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다른 지부도 이와 같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 협회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여러가지 검사종목을 연구·검토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건강검사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외에 그동안 실시해 오던 내원자 건강검사, 근로자 건강검사, 노인건강검사 등을 비롯한 각종 검사사업의 실시에도 전력할 것이다.

이상의 많은 사업과 함께 올해 우리 협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공부하는 협회인"이 되자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기록은 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전개해 왔고 또 그 내적 충실을 위한 연구작업에도 최선을 다해 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건협은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서는 안되며, 끝없이 발전하는 사회의 수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곧 퇴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건강검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또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자세야말로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우리 건협인들은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근무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창립된지 3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고 그 안에서 얻어진 성과 또한 매우 가치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그동안의 사업을 냉철히 평가·반성하고, 국민 건강 관리의 방법을 질적으로 한단계 더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건협 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건강을 원하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 행동 실천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건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 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주어진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부족한 것은 정당하게 요구함으로써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갑술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보자.